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독일의 수소산업 지원정책 동향

코로나 이후 글로벌 항공산업 전망 및 주요국 지원 현황

국제금융시장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독일의 수소산업 지원정책 동향	1
코로나 이후 글로벌 항공산업 전망 및 주요국 지원 현황	3

국제금융시장	5
--------------	---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	9
--------------------	---

독일의 수소산업 지원정책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서대훈 (kdb14@kdb.co.kr)

- ◆ 독일은 '20.6월 수소산업의 육성을 위한 '국가수소전략'을 발표하여, 수소산업에 대한 지원규모 및 방향, 수소전략 시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를 수립
 - 수소기술의 사업화(70억유로) 및 국제협력 촉진(20억유로)을 위해 총 90억유로 지원
- ◆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소경제로드맵('19.1월) 및 수소경제위원회('20.7월) 등을 통해 정책 대응중이며, 필요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

□ '20.6월 독일은 수소산업 지원을 위해 '국가수소전략(National Hydrogen Strategy)' 발표

- (배경) 독일은 다른 EU국가와 함께 '유럽그린딜*'에 합의하는 등 탈탄소화 전략을 수립하였으며,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수소산업의 육성을 선택
 - 또한, 수소산업의 육성이 코로나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독일산업의 새로운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 - * '19.12월 EU에서 발표한 기후변화 관련계획으로, '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, 탄소배출권 구매 등으로 탄소의 순배출량 0을 목표로 함
- (지원규모) 기존의 수소산업 지원정책 이외에 국가수소전략을 통해 9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추가 지원
 - 수소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70억유로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20억유로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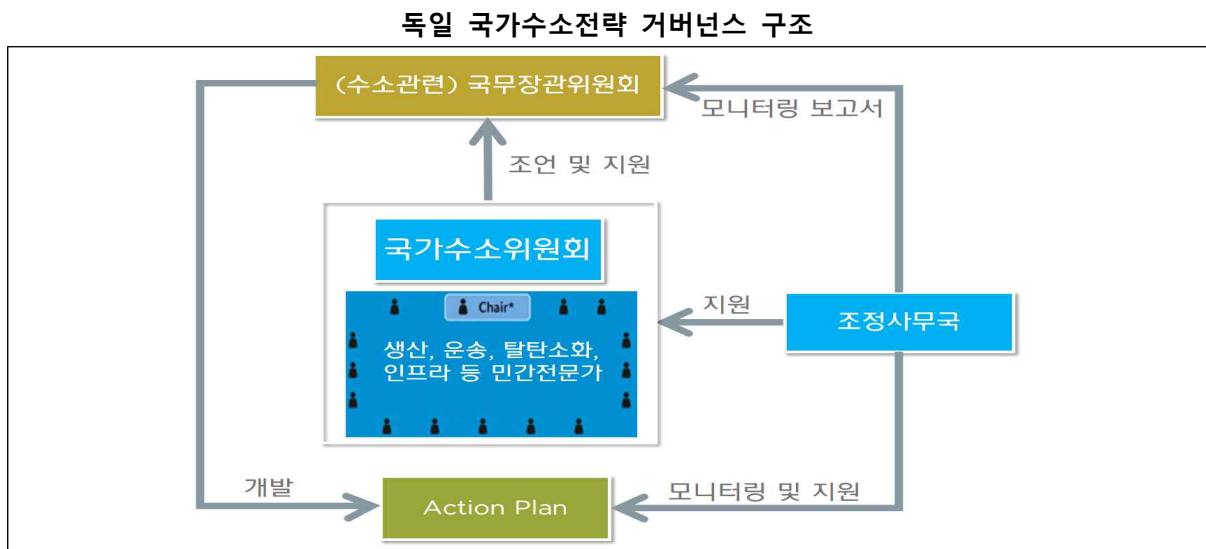
독일의 주요 수소산업 지원정책 현황

지 원 정 책	금 액
① '06~'26년 수소 및 연료전지 기술에 관한 국가 혁신프로그램	21억유로
② '20~'23년 에너지 및 기후기금에 따른 그린수소 개발, 수소기술 관련 에너지 연구	5.3억유로
③ '20~'23년 수소관련 기술 시장화 목적의 '에너지 전환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'	6억유로
④ '20~'23년 생산공정의 탈탄소화를 위해 수소를 사용하는 대규모 산업시설 지원	10억유로
⑤ '20~'30년 국가수소전략(수소기술의 사업화, 국제 협력)	90억유로

자료 :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(2020), "The National Hydrogen Strategy"

- (지원방향) 수소생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수시장을 조성한 후, 자국기업의 국제시장 진출기회 확보 및 국제협력 체제 구축
 - 이를 위해서 ① 수소의 운송·유통 인프라 구축, ② 수소기술관련 연구지원 및 직원교육, ③ 산업부문(화학, 철강 등)에서의 그린수소* 활용, ④ 항공 및 해상운송에서의 수소연료 사용 등을 제시
 - * 물의 전기분해로 생성되는 수소로, 전기분해시 태양광, 풍력 등 재생에너지만 사용하여 탄소 배출이 없음

- 국가수소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상황의 점검 및 전략의 개발을 위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관리
 - 운송, 생산, 인프라, 산업의 탈탄소화 등에 관련된 민간 전문가 26명으로 이루어진 '국가수소위원회(National Hydrogen Council)'를 설립하여, 수소관련 국무장관 위원회에 전략을 제안
 - 국가수소위원회와 정부부처의 긴밀한 연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무장관위원회와 정기적인 공동회의 개최



자료 :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(2020), "The National Hydrogen Strategy"

□ 각국이 수소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정책을 내세우는 가운데, 우리나라 역시 수소 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대응중

- 기후협약을 지키기 위한 세계 각국의 수요 증대로 시장이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*되기 때문에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으로 신속한 수소생산 기반의 구축을 통한 글로벌 표준 선점이 중요
 - 우리나라는 '19.1월 수소경제로드맵 활성화 방안 발표, '20.2월 세계 최초 수소법 제정, '20.7월 수소경제위원회** 출범으로 수소경제 선도 지원중
 - * 독일의 국가수소전략에 따르면 10년내 수소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
 - ** 수소법에 따라 '수소경제 기본계획'의 수립·시행을 하며,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장관(산업부, 기재부, 행안부, 과기부, 환경부, 국토부, 해수부, 중기부)과 산업계·학계·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
 - 독일과 같이 기술의 개발 및 국제시장 조성을 위해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필요

코로나 이후 글로벌 항공산업 전망 및 주요국 지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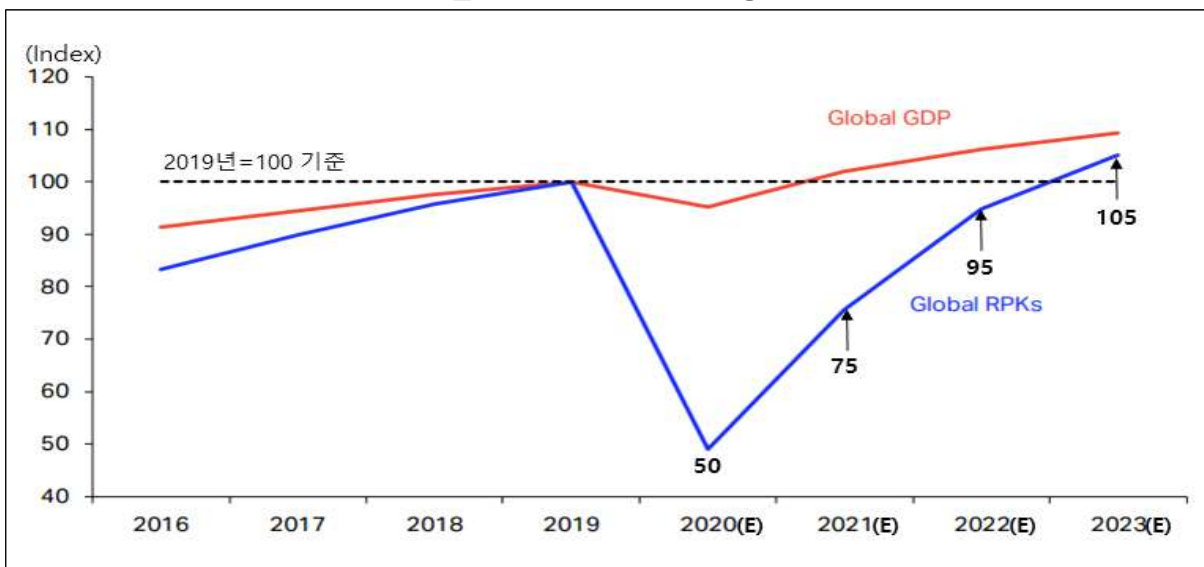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유 지원 (ryan97@kdb.co.kr)

- ◆ 코로나 19로 직격탄을 맞은 세계 항공업계의 '20년 순손실이 약 100조원에 이를 전망이며, 항공 여객수요는 전년 대비 최대 71% 감소할 것으로 전망 (IATA 및 ICAO 전망)
- ◆ 미국, 독일 등 주요국들은 별도의 지원프로그램 또는 기금 등을 통해 코로나 19로 위기에 처한 자국의 항공사들을 적극 지원 중

□ 코로나 19 사태로 글로벌 항공업계 실적 회복은 장기화될 전망

- 항공산업은 과거 사스('03), 메르스('15) 등 수요위축 위기마다 빠른 반등에 성공했지만, 이번 코로나 19는 확산의 만연화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
 - ICAO(국제민간항공기구)는 '20년 글로벌 항공여객수요는 전년대비 최대 71% 감소될 것으로 예측
 - IATA(국제항공운송협회) 역시 '20년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이 843억 달러 (약 100조원)에 이르고, '20년 RPK가 전년대비 약 50%로 급락 후 '22년에 95%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

글로벌 RPK 및 GDP 전망



자료 : IATA(국제항공운송협회, '20. 5)

주 : RPK(Revenue Passenger Kilometer) : 유상여객 킬로미터

□ 글로벌 항공산업 지원 현황

- '20년 글로벌 항공업계 순손실 100조원 규모로 전망되어, 주요 국가들은 자국 항공사에 대규모 유동성 공급 집중
 - (미국) CARES Act*에 따라 항공사에 US\$580억 달러 규모의 대출 또는 보증 지원
 - * CARES Act(Coronavirus Aid,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)는 2조달러 규모의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지원, 구제, 경제 안전 법안
 - (독일) 국적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 총 90억 유로(약 12조원) 지원 합의
 - (프랑스) 항공우주산업에 150억 유로(약 20조원) 지원계획 발표
 - (기타)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정부는 알리탈리아, TAP 항공 국유화를 위해 각각 30억 유로(약 4조원), 12억 유로(약 1.6조원)를 지원할 예정 등

- 한국 정부도 총 3.2조원(대한항공 1.2조원, 아시아나항공 1.7조원, LCC 3천억원)의 자금을 지원하였고, 향후 필요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한 추가 유동성 지원 계획

주요 국가별 항공산업 지원 현황

국 가 별	지 원 현 황
미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U\$580억 달러 규모의 항공사 자금지원 실행중(CARES Act.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 자금 지원 : U\$290억 달러 한도(여객 항공사 U\$250억 달러, 화물 항공사 U\$40억 달러)의 대출 또는 대출보증 지원 - 근로자 임금 보전 지원 : U\$290억 달러 한도(여객 항공사 U\$250억 달러, 화물 항공사 U\$40억 달러)의 대출 및 보조금 지원
독 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경제 안정화 기금 등을 통해 독일 국적 항공사인 루프트 한자항공(Lufthansa)에 대해 90억 유로 지원 예정(5.25일 합의)
프 랑 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공우주산업 지원 프로그램 실행 예정(총 150억 유로. 6.9일 발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어프랑스 항공에 대해 70억 유로 자금 지원 - 에어버스 등 항공기 제작업체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
이 탈 리 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알리탈리아 항공사에 대해 최소 30억 유로 지원 예정(완전 국유화 추진)
영 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버진 아틀란틱 항공 지원 협의중(5억 파운드, 약 8천억원)
포 르 투 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TAP 항공 국유화 추진을 위해 12억 유로 지원 예정
싱 가 포 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싱가포르 항공에 130억 달러(약 16조원) 지원

자료 : 전경련, 각국 정부

국제금융시장 6월 동향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김혜진 (ghjkim@kdb.co.kr)
 정대형 (wellbaby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달러화는 월초 약세 시현 후 강세요인과 약세요인의 혼재로 박스권 내에서 등락하였으며, 원/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
- ◆ **(금리, 추가)** 美 국채 수익률과 주요국 증시의 움직임은 공히 월 초순의 경제회복 자신감에 따른 급등 후 美 연준 등의 비관에 따른 급락과 월 중후반의 혼조세를 시현

□ **(환율) 달러화 가치는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, 유로화 강세로 약세를 보인 후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하였으며, 원/달러 환율은 안전자산 선호 약화, 달러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하락**

- 달러 인덱스*는 주요국 경제활동 재개, 유로화 강세 등으로 약세 시현 후 안전 자산 선호 움직임에 따라 박스권 내에서 등락
 - 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 - 월초 주요국 봉쇄 완화,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약화된 가운데 유로존 공동 재정대응 추진에 따른 유로화 강세가 달러화 약세로 연결
 - 이후 신규 확진자 수 증가 등 코로나19 재유행 조짐, 연준의 보수적인 경기 전망* 등 강세요인이 때때로 부각되며 혼조세 시현
 - * 6월 FOMC(10일)에서 연준은 '20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$\Delta 6.5\%$ (8.5%p 하향)로 전망하였으며, 파월 의장은 FOMC 후 실시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매우 불확실하다고 언급
- 엔화는 월초 경제활동 재개 기대, 달러화 약세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아 급 등락하였으며, 이후 강세요인과 약세요인의 혼조에 따른 보합세 시현
- 유로화는 경제회복기금 조성에 대해 독일이 전향적으로 지지를 표명함에 따라 유로존 공동 재정대응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되며 강세 시현
 - 달러/유로 환율은 월중 1.13달러선을 상회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, 월말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상승폭을 일부 반납

주요 선진국 통화 환율 추이

	'18년말	'19년말	'20.5월말	'20.6월말	전월대비
달러 인덱스	96.140	96.479	98.264	97.360	$\Delta 0.92\%$
엔/달러	109.61	108.66	107.80	107.91	+0.10%
달러/유로	1.1456	1.1219	1.1103	1.1236	+1.20%

주 :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 자료 : 연합인포맥스

- 원/달러 환율은 주요국 봉쇄 완화, 달러화 약세 등으로 장중 1,180원대까지 하락
 - 이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, 북한의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(16일)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여 1,200원대 재진입한 후 박스권 내 등락

원화 환율 추이

	'18년말	'19년말	'20.5월말	'20.6월말	전월대비
원/달러	1,115.7	1,156.4	1,238.5	1,203.0	△2.87%
원/엔	1,017.9	1,064.2	1,148.7	1,114.4	△2.99%

자료 : 연합인포맥스

□ (금리)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월초 급등락을 보이는 등 전월보다 변동폭이 증가한 혼조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반영

- 월초 경제회복 자신감에 따라 20bp 이상 급등한 美 국채 10년물 금리는 FOMC의 기준금리 동결 유지 시사를 기점으로 다시 월초 수준으로 급락한 이후 0.6~0.7%에서 보합세
 - FOMC는 10일 기준금리 0.0~0.25% 동결 및 '22년까지 유지를 발표하여, 코로나19 악영향이 장기화할 것임을 시사

□ (주가) 미국·유럽·일본 등 선진국 증시의 월중 움직임도 美 국채 10년물 시장의 월중 움직임과 매우 유사한 '월 초반 급등락 이후 월 후반 혼조세' 양상

- 월 초순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 등 낙관적 요인으로 급상승했던 선진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동결,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다시 급락한 후 비교적 소폭의 등락을 거듭
 - FOMC 금리동결(10일)과 OECD 수정경제전망(10일)* 등이 월초 급등세를 제한
- * 주요 경제전망기구들 중 올해 첫 코로나 재확산 발생(double-hit) 시나리오를 제시

주요국 국채 금리 및 주가 추이

		'18년말	'19년말	'20.5월말	'20.6월말	전월대비
금리 (%)	미국채 10y	2.6842	1.9175	0.6526	0.6561	+0.35bp
	독일채 10y	0.2420	-0.1850	-0.4470	-0.4540	△0.70bp
	일본채 10y	0.0030	-0.0110	0.0050	0.0280	+2.30bp
주가 (pt)	다우존스	23,327.46	28,538.44	25,383.11	25,812.88	+1.69%
	유로 Stoxx 50	3,001.42	3,745.15	3,050.20	3,234.07	+6.03%
	Nikkei	20,014.77	23,656.62	21,877.89	22,288.14	+1.88%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시장 7월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김혜진 (ghjkim@kdb.co.kr)
 정대형 (wellbaby@kdb.co.kr)

- ◆ **(환율)** 달러화는 경기회복 기대와 지연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강보합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, 원/달러 환율은 박스권 내 등락 전망
- ◆ **(금리, 주가)**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반영된 장기금리 변동성 지속이 예상되며, 증시는 유동성에 기댄 상승추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 상존

□ **(환율)** 달러화는 경기회복 지연, 재확산 우려 등 강세요인이 소폭 우세할 전망이며, 원/달러 환율은 추가 하락 동인의 부재로 박스권 내에서 등락 예상

○ **달러화 : 강보합**

- 경기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공존하는 가운데 주요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* 하향조정, 재확산 우려 등으로 경기회복 기대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어 달러화 강세압력이 소폭 우세할 것으로 전망
- * 세계경제성장률 전망 : (IMF) 1월 3.3% → 4월 Δ 3.0% → 6월 Δ 4.9%, (OECD) 2월 2.4% → 6월 Δ 6.0%
- 또한, 대규모 유동성으로 확대된 금융시장-실물경제간 괴리가 자산가격 조정 등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경우 달러화 강세압력으로 작용 가능

○ **엔화 : 보합**

- 일본 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, 경기부진* 등 약세요인과 안전자산 선호 등 강세요인의 상존으로 뚜렷한 방향성 없이 등락을 거듭할 전망
- * 7.1일 발표된 6월 단칸지수(일본 대형 제조업체의 경기 판단 지표)는 Δ 34로 11년만에 최저치를 기록

○ **유로화 : 추가 강세 제한**

- EU 정상회담(7.17~18일)에서 경제회복기금 조성과 관련한 진전이 있을 경우 추가 강세가 가능하나, 회원국간 이견 지속으로 합의 도출에 난관 예상

○ **원/달러 환율 : 박스권 내 등락**

- 외국인 주식 매도 등으로 달러화 수급 여건 개선이 지연되며 1,200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할 전망
- 전월의 환율 하락은 경기회복 기대, 달러화 약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, 최근의

신규 확진자 발생 증가, 글로벌 고용 및 수요 회복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추세적인 하락세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

□ (금리, 주가) 장기채권 시장에서 변동성이 지속되고, 증시에서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우려가 상승랠리에 제동을 걸 가능성 존재

○ 금리 : 장기채권 시장의 변동성 지속

- 전반적인 경제회복 기대심리에 따른 채권수익률 상승요인과 주요기업 2분기 잠정실적 발표에 따른 실물경제 충격의 가시화, 팬데믹 2차 확산, 미·중 갈등 격화 등 수익률 하락요인이 공존하며 불확실성 지속

○ 주가 : 유동성 장세 제동 가능성

- 코로나 시대 맞춤형 기술 투자 등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가 지속되는 한편, 유동성에 기댄 주가-펀더멘털 괴리 우려로 증시의 상승추세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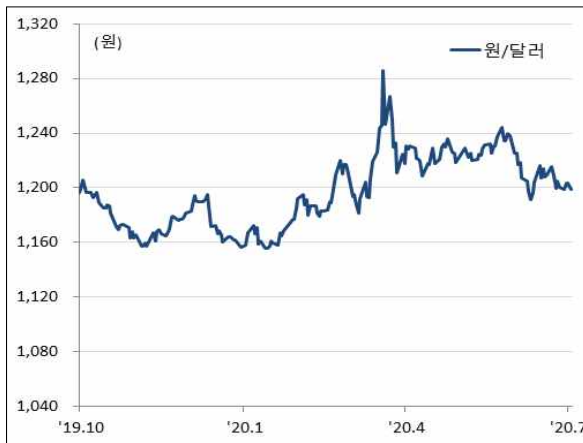
(담당자 : 환울 - 김혜진, 금리·주가 - 정대형)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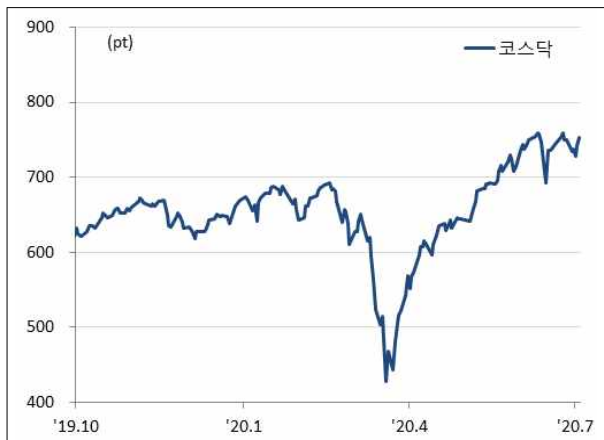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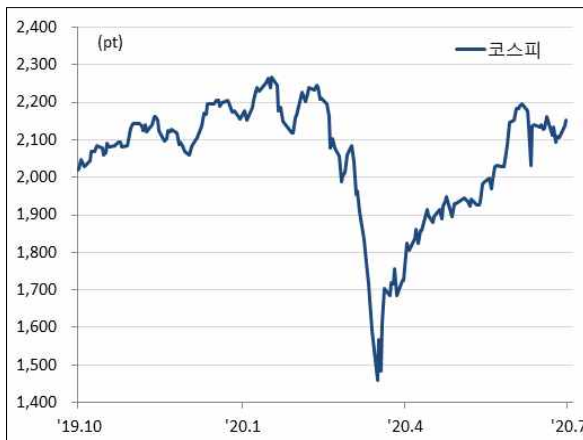
금리 국고채3년 0.838% (2.7bp ↑), 신용스프레드 71.7bp (1.5bp ↓)



환율 원/달러 1,198.6원 (2.0원 ↓), 엔/달러 107.51엔 (0.28엔 ↑)



주가 코스피 2,152.41pt (0.83% ↑), 코스닥지수 752.18pt (0.21% ↑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885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26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